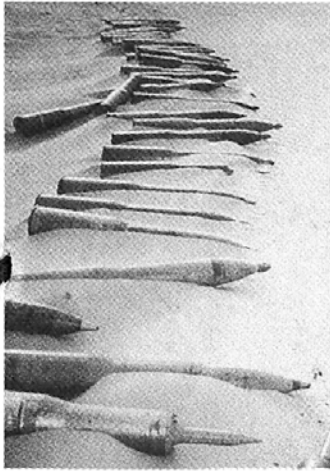


현재 보유량으로도 '지구파괴'

전쟁무기



◇ 군사관련 활동으로 세계 환경의 10~30%가 오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것을 중재해서 전쟁을 방지했고 또한 아지파사우왕이 밧지족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

소위 정당한 전쟁에 사용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무기는 현대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무기는 잔인, 폭력, 학살을 합리화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주의 불이다.

그러나 세계의 정부들은 2차대전 이후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해아릴 수 없는 규모의 파괴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되었다. 90년대 초까지 5만여개의 핵탄두(TNT 130억톤 규모)와 7만톤 이상의 독가스, 수백만톤의 폭약 및 탄약, 4만5천대의 전투기, 17만 2천대의 탱크, 15만5천문의 대포, 그리고 2천척의 잠수함 및 잠수함을 비롯했다. 이들은 전 지구를 파괴하고도 남을만한 파괴 상충력을 지녔다.

구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냉전에서 해빙이 시작되어 군비경쟁은 약화되어, 1988년 이래 일련의 조약들은 핵과 화학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추가 감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말이 감축이지만 제조과정에서 수많은 공해요인을 산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27

출하고 폐기과정에 엄청난 경비와 공해요인 및 폐기물이 발생하는 군비축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만무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국화시대의 국가

월남전에서 고엽제 살포이다. 다이옥신이라는 맹독성 화학물질인 고엽제 살포로 월남에서 태아의 절반이 사산되고 기형아 발생율이 전전보다

제조·폐기과정 치명적 독성물질 배출 전 세계 핵물질·화학무기등 군축 비상

경쟁력을 위해, 대량의 무기를 그대로 보존시킬 것이다. 설사 내일 당장 핵무기를 병기창에 폐쇄시킨다 해도 그 위험한 폐기물은 반영구적으로 지구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 자연보호연맹은 월남이 불모의 땅이 되지 않으려면 월남전역에 5억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의 스텐버그에 있는 평화정책 연구소는 세계 환경의 질저하의 10~30%가 군사관련 활동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군사활동 가운데 히로시마의 원폭투하도 있지만,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전시가 아니라도 군대는 그들의 위용과 군비의 추후과정에서 생태계에 치명적인 독성물질을 퍼뜨리고 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독성물질은 사람들이 마시고 관계에 사용하는 물을 오염시키고, 수중생태계를 파괴하고,

대기를 더럽히고, 광활한 토지를 불모지화 한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치명적인 액체성 독성물질의 폐기장이 되어온 군사기지들은 이제 서서히 작동하는 건강에 대한 시한폭탄이 되고있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그리고 기타 군사장비의 제조, 유지, 비축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이 폐기물에는 연료와 페인트, 용제, 중금속, 살충제, 폴리염화비페닐, 시안화물, 페놀, 알칼리, 화학, 폭발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람이 이러한 물질에 노출되면 암, 기형아출산, 염색체 손상, 간과 신장, 혈액 및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한다.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군사지역의 숫자가 미국의 경우만 해도 1989년 1천5백77개 군사기지의 1만천

4백개와 부지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대관련 환경오염에 관한 자료가 없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없지만, 남북 모두 상당하다고 본다. 우리는 아직 해방의 시대에 서 냉전의 한복판에 살고있는 만큼, 정당한 전쟁을 위한 군비경쟁을 늦출 수 없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중의 불을 끄고 화해길로 나서는 길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불만한 가을산

단풍의 계절이다. 기성권에 따르면 금년 단풍은 예년에 비해 2~3일 빠르다고 한다. 이미 설악산이 정상부터 붉게 물들었다. 명산을 장엄하는 단풍소식은 오대산 북한산 치악산을 따라 남도의 무등산과 두륜산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명산과 고찰을 따라 가을 불심을 키워보자.

▲설악산: 이미 9월 말부터 단풍이 붉다. 설악산하면 으레 떠오르는 신홍사 경내에도 단풍이 불만하다. 속초 일원에서 열리는 설악제가 9월~11월까지, 강릉의 '영동예술제'가 16일~17일까지 열려 이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오진관광(739-1211) 롯데관광(733-0201) 스마일관광

산행길 산사의 법회 보람 내장산 단풍 20일경 절정

▲오대산: 역시 이미 단풍이 짙게 물들었으며 월정사, 상원사 등의 코스도 불심을 키우고 있다. 용진신행회(279-1199)의 보종순례를 동참하는 것도 좋다. 평창의 노성제가 열리는 6일~8일 사이에 노성제와 오대산을 찾는 것도 뜻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소백산·월악산: 10월10일 전후로 절정의 단풍을 볼 수 있다. 소백산은 구인사 계곡과 영춘면 일대 회방사, 비로사 코스 등 어느 코스든 단풍길이 열려 있다. 4일~9일까지의 충주 우륜문화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소백산·월악산: 10월10일 전후로 절정의 단풍을 볼 수 있다. 소백산은 구인사 계곡과 영춘면 일대 회방사, 비로사 코스 등 어느 코스든 단풍길이 열려 있다. 4일~9일까지의 충주 우륜문화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거쳐가도 좋은 코스가 된다. ▲속리산: 단풍은 10월을 전후해 절정이며 마침 10월 법주사에서 신도 5계 수계식(계사 해경스님)이 봉행된다. 미리 접수를 하고(0433-43-3615) 참가할 수 있다. 또 16일은 설악기도법회(주지 월성스님 설법)도 있어 법회후 새벽산행이 운치있을 것이다.

▲계룡산: 10일~15일경의 단풍이 불만하고 동학사의 감사를 잇는 등산로의 단풍길이 좋다. 남매담의 애절한 정설과 함께 하는 이 코스 끝에서 감사 동학사 보름법회를 참가하는 것이 보람있을 것이다. 지난달 30일~9일 까지 한빛문화제가 열리는 대전시내도 좋은 볼거리가 가득하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공주에서 백제문화제가 열린다.

▲내장산: 15일~25일까지 단풍의 절정기가 된다. 내장사의 경내에도 단풍들이 불타고 임구의 단풍터널은 일제시대에 매곡스님의 지시로 심어진 토포 단풍나무들이 이루는 장관이다. 내장사가 있는 정음사가 주관하는 '정음사문화제'는 19일~22일까지 열린다. 농악경연, 사진전 등 볼거리가 많다.

▲소백산·월악산: 10월10일 전후로 절정의 단풍을 볼 수 있다. 소백산은 구인사 계곡과 영춘면 일대 회방사, 비로사 코스 등 어느 코스든 단풍길이 열려 있다. 4일~9일까지의 충주 우륜문화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소백산·월악산: 10월10일 전후로 절정의 단풍을 볼 수 있다. 소백산은 구인사 계곡과 영춘면 일대 회방사, 비로사 코스 등 어느 코스든 단풍길이 열려 있다. 4일~9일까지의 충주 우륜문화제를 마련해 놓고 있다.

불교와 예술 조화미 극치

광주비엔날레 유명사찰 연계코스

단풍소식에 가슴 설레는 남도의 산사라들. 세계인의 미술축제 광주비엔날레가 한창인 전남권의 사찰들이 미술품에 감동된 국내외 관광객의 눈을 다시한번 경탄케 한다.

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추천한 연계관광코스에는 전남북 일대의 사찰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비엔날레도 보고 불심도 단풍처럼 물들었다"는 기회가 될 이 관광코스는 당일에서 3박 4일까지도 나뉘어 있다. 당일코스에는 송광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1박2일코스에는 대흥사, 월출산 도암사, 백암사, 내장사 등이 추천됐다.

2박3일 코스에는 선암사, 송광사, 화엄사 등과 대흥사까지가 포함됐다. 이들 사찰은 모두 교구본사이고 산의 단풍도 일품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3박4일 코스에는 운주사가 포함되어 있어 미완의 천불천탑을 보며 불심을 기를 수 있다.

이밖에도 광주 인근의 향림사, 증심사를 단출하게 둘러 보는 것도 좋다. 숙박은 조직위가 운영하는 숙박정보센터(062-224-9456)를 이용하면 쉽게 예약할 수 있으며 전남권(062-232-78126) 전북권(0652-84-6715) 등 안내참구가 나뉘어 있기 도하다.

신행수첩

발길 닿는곳이 불국정토

광주불교교육원 유적 답사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지선)은 우리 문화의 맥을 찾아 나서는 '제3회 불교문화 강좌'를 마련한다.

이번 강좌는 '불교문화 그 장엄과 교화 그리고 예배의 삼중주'란 주제로 전남지역 불교 문화 전문가들을 초청, 강의와 답사를 통해 드넓은 불교문화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런 때 힘이 돼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거기에서 일에 대한 보람을 찾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그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 여건은 턱없이 부족

독서철 '민중의 지팡이'에 불서를

서울시경 경승실 도서실 개설

한 실정이고, 심지어는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한 불서마저 없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자우성)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겨우에 시달리는 젊은 전·외경과 경찰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도서실을 운영한다.

하지만 아직도 불서가 많이 부족해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부처님의 정법이 수도 치안 경찰과 그 가족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02)739-6500

마련한다.

이런 강좌는 '불교문화 그 장엄과 교화 그리고 예배의 삼중주'란 주제로 전남지역 불교 문화 전문가들을 초청, 강의와 답사를 통해 드넓은 불교문화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런 때 힘이 돼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거기에서 일에 대한 보람을 찾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그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 여건은 턱없이 부족

한 실정이고, 심지어는 부처님 법을 배우기 위한 불서마저 없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자우성)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겨우에 시달리는 젊은 전·외경과 경찰 가족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도서실을 운영한다.

하지만 아직도 불서가 많이 부족해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부처님의 정법이 수도 치안 경찰과 그 가족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02)739-6500

지난 22일부터 10월22일까지

매주 수·금 오후7시~9시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이 강좌는 7회의 강의와 2회의 유적답사로 짜여 있다.

강의 주제는 △9월29일, 사찰 건축의 공간구성 원리 △10월4일, 고려불화 그 장엄의 극치 △6일, 고승들의 묘탑과 행적 비에 담긴 뜻 △11일, 불교속에 수용된 민속문화 △13일, 운주사 천불천탑의 불가사의 △18일, 조선불화의 예술성 △20일, 결집속에 담긴 상징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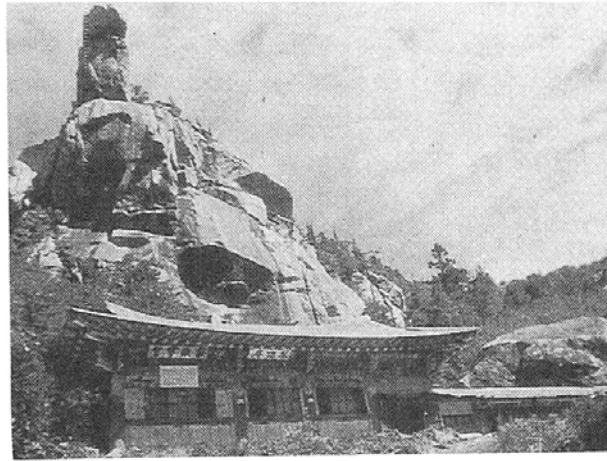
유적답사는 백암산 백암사,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062)228-9098

단풍에 물든 보궁 봉정암

불교대구교육원 기도참배

바야흐로 단풍시즌이라 불리는 계절에 들어섰다. 아직 설악산 아래에서는 단풍을 볼 수 없지만 등산로를 따라 올라갈수록 붉은 단풍의 설레임을 느낄 수 있다.

불교대구교육원이 오는 10월



8일부터 3박4일간 가을을 등에 업고 봉정암등을 둘러보는 기도참배여행을 떠난다.

소청봉 서북쪽턱에 설악산 내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고찰 봉정암이 있다. 당구는 법당과 요사뿐이나 후면에 솟은 우람하면서도 운치가 가득한 봉바위(미륵봉)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또 그 옆 언덕엔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7층석탑이 자장에 얽힌 옛얘기를 간직하고 있다.

이 절에 오르기 위해서 그 유명한 백담사와 오세암을 거치는데 여기에서도 일박을 하

게 된다. 봉정암서 3km쯤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 남씨가 맑은 날엔 정상에서 금강산과 눈이내 펼쳐지는 무한한 바다의 선경(仙境)도 맛볼 수 있다. (063)253-7063

이런 때 힘이 돼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거기에서 일에 대한 보람을 찾는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과 그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 여건은 턱없이 부족

살찌는 가을 풍요한 생활

조계사 문화강좌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좋은 이 때 좋은 문화강좌를 찾아 생활을 살찌우는 것도 단풍을 보는 것

못지 않은 즐거움이 될 것이다. 조계사는 2일부터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불자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강좌는 불화 그리기, 불교전통 꽃꽂이, 수지침, 서예, 관소시, 토탈에이크, 사업자, 선체초 등으로 모두 2개월 과정이다.

또 성별, 학력,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 자기언어를 통한 행복추구의 수월도량이 될 것이다. (02)720-1390

생활속의 불교 43

더러운 천에 물감을 들인다면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에 옷감 만드는 사람이 더러운 천을 물감에 담근다고 하자. 그 물감이 노랗거나 붉거나 간에 그 천은 더럽고 추한 빛깔일 것이다. 만약에 티 한점 없는 천을 물감에 담근다고 하자. 그러면 그 천은 아름답고 눈부신 빛깔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 말씀 하시기 위해 이런 비유를 드셨던 것이다. 바두빠마 경에 나오는 말씀이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마음의 때라고 하시는지?

탐욕-기나친 욕망이 마음의 때이다. 적의(敵意), 노여움, 원한, 위선, 악감, 질투, 속임수, 거짓말, 오만, 자만심, 허풍, 게으름..... 따위가 마음의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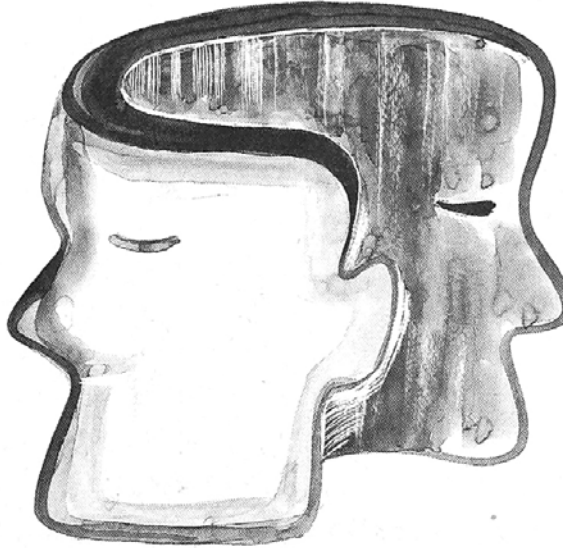
이 마음의 때를 거부하고, 놓아버리고, 단념하고, 깨워낼 때 사람들은 더러

운 천이 아니라 깨끗한 천이 될 수 있고, 비로소 자신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고 맑게 물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인도에는 신성시하는 강물에 들어가 몸을 씻음으로써 자신을 정화하는 의식이 있다. 그러나 그 의식을 통해 마음의 때를 씻어내지 못하고 단지 몸을 씻는 의식을 행한 데 불과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목욕탕을 찾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

때 맞춰 도량을 찾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사찰에, 법회에 가서 정성을 기울여 마음의 때를 씻고자 노력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는 게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다만 습관처럼, 어떤 의무감에서, 혹은 그것이 불자다운 행동인 양 여긴다면 그 순간부터 도량은 한낱 의식 장소에 불과하게 된다.

가람이 마음의 때-미음·탐욕·거



짓·심술 따위를 깨끗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가람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의 때를 씻어내고자 할 때 비로소 도량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람이 마음의 세탁소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울긋불긋한 건물이 되고 마느냐 하는 것은 불자들의 마음 자세에 달려 있다.

도량은 복을 비는 곳이 아니다. 시주를 올리고 '아무개가 이렇게 시주했으니 가피를 내려주소시오.'한다면 들장승에 빌고 칠성각에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삼계도사이신 부처님을 저 돌장승쯤으로 격하시켜놓고 스스로 불자입네 말할 수 있겠는가?

어디 더 좋은 기도처는 없나? 어디 더 좋은 스님은 안 계신가? 이런 생각 한두 번 안 가져본 불자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욕심이다. 마음의 때이다. 그러므로 설사 더 좋은 기도처, 더 좋은 스님을 만난다 쳐도 더러운 천을 물감에 담그는 것과 같아 더럽고 추한 빛깔을 낼 뿐이다.

부처님께서 '지금 여기가 그대로 도량'이라 하셨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예가 그대로 사찰이라 하셨다. 몸이 세속을 떨쳐서 입산 출가인 게 아니라 마음이 세속을 떨쳐니 입산 출가라 하셨다. 마음의 때를 씻어 굽디굽게 불법의 물을 들이려 한다면 도량을 찾기 전에 내 마음의 때를 돌아보자. 그래야 비로소 내가 찾는 도량이 부처님 계신 도량이 되는 것이다.

협찬: 한 마음